

# 군 면제 등 도덕성 논란 속 인준안 처리 주목

###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부 관심

### 민주 “황 후보자 당내 평가 썩 좋지않다” 신중 자세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났다. 인사청문회위는 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심사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임명동의안은 국회 재적위원의 과반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사람이 1종 면허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시력은 감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청문회에 불출석한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은 “양 전 원

장이 4대강 감사와 관련해 격정을 많이 하며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본다”며 “채동욱 검찰총장과 비슷한 케이스로서 특별히 정치권이나 청와대와 의 갈등에서 (사퇴가) 비롯된 게 아닌데 마치 정치적 외풍이나 탄압의 희생양이 된 듯 모양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임 감사위원 제정 과정에서 양 전 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양 전 원장은 (임명 제정) 장훈 교수에 대해 정치성향이 강하다고 판단 한 듯 싶다”고 말했다.

◇인준안 통과하나=정치권은 이렇다 할 “결정적 한방” 없이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평이하게 진행돼 인준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이날 현재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한 목소리로 호평한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부적격 판정과 유보적 입장이 혼재된 모습이다.

특위위원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장으로서 추상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치명적 결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황 후보자

를 낙마시킬 ‘치명적 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의 원내 관계자는 “황 후보자에 대한 당내 평가가 썩 좋지는 않지만 당장 적합·부적합의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처리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일각에서는 벌써 전병헌 원내대표가 통과의견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투쟁방향·대통령 시정연설 당내 강·온파 대립

# 고민 깊어지는 민주당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0일이 넘는 천막당사 투쟁을 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온데다 여권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두 차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경책을 동원했으나 여론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정국대응 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강·온파의 의견차가 커서 통일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라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어느 것 하나 여론에서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일정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강경파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와 국회 내 농성 등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강경한 대응이 여론에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민에게 현 여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온건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복가능의 상

황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전남의 한 초선 의원은 “아무리 여론의 태도가 맘에 안 들더라도 국민을 보고 정책을 해야 한다”며 “참고 또 참으면서 국민만 보고 가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 나머지 의사일정 전면 거부까지 가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을 봐가며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방안은 선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오는 18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진전된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시정연설을 놓고도 강·온파의 대립으로 고민에 빠졌다.

강경파 의원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어선 안 된다”며 시정연설 보이콧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건파 그룹에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야 한다”며 시정연설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시정연설에 참여하되 대통령 임·퇴장시 기립을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손뼉을 치지 않는 등의 대응방안도 내놓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남스

# 野, 공문서 위조·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기

###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정부의 기초연금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아들에게 증여한 예금에 대한 증여세와 일부 종합소득세를 장관 내정 후 냈다는 점을 거론, “장관으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세금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지식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후보자는 2010년 종합소득세를 올해 7월에 냈고 2011년 소득세는 장관 내정을 받

고셔야 납부했다. 또 복지부 소관인 적십자사에서 걷는 회비는 지난 8년 동안 내지않다가 역시 장관으로 내정된 뒤 냈다. 특히 기부금은 지금까지 낸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처럼 공적마인드가 결여된 사람을 어떻게 복지부장관으로 믿고 따르겠느냐”고 질타했다.

문 후보자가 장관 내정 후 자신이 근무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휴가계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법인카드를 일부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류상으로 문 후보자는 10월28일부터 휴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참 뒤인 11월8일에서 휴가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론 KDI 내부 결재도 8일에서 이뤄졌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0월28일부터 휴가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담당 직원도 이를 인정했다. 이는 문 후보자가 무단결근을 했고 결과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따졌다.

같은 당 이복희 의원은 문 후보자의 아들 생일과 처의 생일인 1월○○일, 3월○○일을 구제책으로 언급하며 최근 몇년 동안 이 날짜에 법인카드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증거로 내밀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장관직을

그만두겠느냐”고 물었고 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문 후보자는 연금 전문가로서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우선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는 현행 제도보다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현행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기금부족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명시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아울러 “노인들 100%에게 기초연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정부가 도입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서면답변서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러 정상회담 오찬

### 김한길 대표 불참기로

### 박대통령과 조우 무산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낮 청와대에서 열리는 한·러정상회담 오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6일에 이어 약 두 달만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김 대표의 조우는 무산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김 대표가 한·러의원전선협회장 자격으로 내일 낮 청와대에서 예정된 오찬에 초청을 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한·러의원전선협회 부회장인 박기춘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이용섭 “안철수 교감설 사실 아니다”

### 광주시장 출마 여부 정기국회 이후 밝힐 것

### 민주-안 신당 호남서 경쟁하는 것 바람직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2일 내년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이 의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대표를 나왔던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말했다. 이 의원은 “내 이익을 위해 정도와 원칙을 버리고 결는질하고 있다”며 “(안철수 신당 광주시장 후보는) 내 삶의 궤적과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경쟁하는 것이 광주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경쟁을 통해 훌륭한 후보가 밝히고 민주당 독립구

도가 무너지면 영남에서 새누리당 독점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지역적 폐해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을 안 의원과 연결시켜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일부 세력이 연계설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장 출마 선언 시점과 관련해 “정기국회 끝나고 시민의견을 듣고 광주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시장도 업무에 전념해야지 선거분위기로 가는 것은 광주발전을 위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20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 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지하상가 1,800㎡(점포 7칸) 매 10억(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 5천),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창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해보면 2차선도로변 답 1,245㎡ 매9천5백만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금매,조점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8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함평군 영일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대인동 소방도청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분로 5가에 있을 9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을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 광산구 신창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선 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통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선 수익 매도 9억6천
- 나대지 목포시 용당동 MBC방송국 인근 대로면 상업지역 410㎡(124) 상가와 원룸 적합 대출 3억 2천 매도 2천
- 남평읍 예서 차로 10분거리 마을 대지 162평 전원생활적합 대출 2천만원 매도 3백만원
- 금분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소리룸 922허기,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있는 식당도 적합
- 임대·매매, 쌍촌동에 신축중인 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입주는 12월 초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지는 여러 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다우권선설팀, 매수선정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13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1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